IBK경제연구소 경제분석팀 sylee@ibk.co.kr ☎ 02-729-6899

IBK경제나침반 : 글로벌 경제동향

2017.5

참!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| IBK경제연구소

16.42 / a669fe38-dfc / 2017-06-27 15:18:25 / 25293 / 70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, 바로 당신 입니다!

목차

Ⅰ. 국가별 동향

미　국 : 실물지표 회복세 이어지며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증대

유로존 :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은 지속될 전망

중　국 : 4월 생산·수출·투자가 모두 둔화되며 경기회복세 주춤

일　본 : 1/4분기 경제성장률(속보) 전년동기대비 1.6%, 완만한 회복기조 유지

한　국 : 수출과 투자 주도의 경기회복 확산을 위해 내수경기 및 일자리 뒷받침 필요

I B K 경 제 연 구 소
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

본 자료는 IBK경제연구소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식 자료이며, 어떤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, 바로 당신 입니다!

Ⅰ. 국가별 동향

□ 미국, 실물지표 회복세 이어지며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증대

○ 4월 생산, 소비,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선물시장에 반영된 6월 금리 인상 확률은 5월 초 60% 수준(5.1일 69.7%)에서 100%(5.23일)까지 상승

○ 1/4분기 가계부채는 12.73조달러(GDP 67%)로 '08년 3/4분기(12.68조달러, GDP 85%)를 초과
→ 미국 경제규모가 커지고, 전체 연체율이 4.8%로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, 저금리 장기화가 악성부채 증가로 연결될 수 있어 지켜볼 필요

○ 트럼프-러시아 커넥션 의혹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되며 주가가 하락하고 국채금리도 하락(美 국채가격 상승)

※ 다우지수(pt) : 21,012(5.8) → 20,976(5.9, FBI국장 경질) → 20,606(5.17, 특검임명) → 20,895(5.22, △1.0%)

※ 국채금리(10년, %) : 2.4(5.8) → 2.4(5.9, FBI국장 경질) → 2.2(5.17, 특검임명) → 2.3(5.22, △13bp)

- 실제 탄핵 여부를 차치하더라도, 이슈가 제기되는 동안*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져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책이 지체될 가능성

* 클린턴-르윈스키 스캔들 : 특검(1998.1월)~탄핵부결(1999.2월)까지 약 1년 소요

분기지표	'16.Q1	Q2	Q3	Q4	'17.Q1
GDP(전년동기대비, %)	1.6	1.3	1.7	2.0	1.9

월지표	'16.4월	11월	12월	'17.1월	2월	3월	4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△1.7	△0.4	0.8	0.0	0.4	1.5	2.2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3.0	4.0	4.4	6.1	5.2	5.3	4.9
실업률(%)	5.0	4.6	4.7	4.8	4.7	4.5	4.4
비농업부문 신규취업자(만명)	15.3	16.4	15.5	21.6	23.2	7.9	21.1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1.1	1.7	2.1	2.5	2.8	2.4	2.2

□ 유로존,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은 지속될 전망

○ EU집행위원회는 '17년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(1.6→1.7%)

- (성장 요인) 글로벌 교역 증가,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, 선진국의 수요 회복 등을 제시
- (리스크 요인) 미국 보호무역 정책, 유럽 은행부문 건전성, 브렉시트 협상 등을 제시

※ '17년 주요국 경제전망치(%) : 스페인(2.3→2.8), 포르투갈(1.6→1.8), 독일(1.6→1.6), 프랑스(1.4→1.4), 이탈리아(0.9→0.9), 그리스(2.7→2.1)

- 한편, 4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유럽의 경제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매입규모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망이 제기되며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 가능성 증가(5.18일)

분기지표	'16.Q1	Q2	Q3	Q4	'17.Q1
GDP(전년동기대비, %)	1.7	1.6	1.8	1.8	1.7

월지표	'16.4월	'16.11월	12월	'17.1월	2월	3월	4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2.0	3.4	2.7	0.4	1.4	1.9	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2.1	2.7	1.5	1.6	1.7	2.3	
실업률(%)	10.2	9.7	9.6	9.6	9.5	9.5	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△0.2	0.6	1.1	1.8	2.0	1.5	1.9

16.42 / a669fe38-dfc / 2017-06-27 15:18:25 / 25293 / 70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, 바로 당신 입니다!

□ 중국, 4월 생산·수출·투자가 모두 둔화되며 경기회복세 주춤

○ ①구리, 니켈 등 원자재 가격하락 ②기준금리 인상 ③금융시장 규제강화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제조업 경기가 주춤한 모습

-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산업생산 증가율이 둔화되고(7.6%→6.5%) 수출 증가율도 전월의 절반 이하 수준을 기록(16.4%→8.0%)하며 시장예상(11.3%)을 크게 하회

※ 생산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 : 7.8('17.2) → 7.6(3) → 6.4(4), 이中 원자재 : 15.5('17.2) → 14.9(3) → 13.0(4)

- 고정자산투자는 '17.1월 이후 금리인상이 지속되고, 그림자금융 규제 등 시장감시가 강화되자 민간투자가 8개월만에 둔화세로 전환하며 8.9% 증가에 그침

○ 무디스는 ①중국의 성장둔화 ②부채증가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 ③부동산 버블 ④구조조정 지연 등을 이유로 28년만에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(Aa3→A1)

- (평가 및 전망) 외형적으로는 성장률이 회복되고 GDP대비 부채비율 및 부실대출도 줄고 있으나, 악성부채(그림자금융) 증가, 24개월연속 부동산가격 상승, 구조조정 지연 등 우려요인이 확대되며 다른 평가기관도 잇달아 신용등급을 강등시킬지 지켜볼 필요

※ 주요국 기업부채('16.Q3, % of GDP) : **한국 104**, **중국 166**, 미국 73, 유로존 104, 일본 94

분기지표	'16.Q1	Q2	Q3	Q4	'17.Q1
GDP(전년동기대비, %)	6.7	6.7	6.7	6.8	6.9

월지표	'16.4월	11월	12월	'17.1월	2월	3월	4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5.4	6.2	6.0	6.3		7.6	6.5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10.2	10.8	10.9	9.5		10.9	10.7
고정자산투자(전년동월대비, %)	10.2	8.3	8.1	8.9		9.2	8.9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△11.2	0.1	△6.1	7.9	△1.3	16.4	8.0
70개도시신규주택가격(전월동월대비,%)	1.1	10.8	10.8	10.7	10.6	10.3	9.9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1.8	2.3	2.1	2.5	0.8	0.9	1.2

□ 일본, 1/4분기 경제성장률(속보) 전년동기대비 1.6%, 완만한 회복기조 유지

○ 개인소비가 다소 회복되며 경제성장률은 5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

※ 경제성장률(전년동기대비, %) : 0.5('16.Q1) → 0.9(Q2) → 1.1(Q3) → 1.7(Q4) → 1.6('17.Q1)

- 의류, 스마트폰 등에 대한 개인소비가 확대(1.0%증가)되며 성장을 견인(기여도 0.6%p)
- 수출의 경우,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, 품목별로는 반도체 제조 장치 등의 기계부문 수출이 확대(순수출 기여도 0.8%p)

분기지표	'16.Q1	Q2	Q3	Q4	'17.Q1
GDP(전년동기대비, %)	0.5	0.9	1.1	1.7	1.6

월지표	'16.4월	'16.11월	12월	1월	2월	3월	4월
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△3.2	4.4	3.1	3.2	4.7	3.5	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0.9	1.7	0.7	1.0	0.2	2.1	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△10.1	△0.4	5.4	1.3	11.3	12.0	7.5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0	0.5	0.3	0.5	0.2	0.2	

16.42 / a669fe38-dfc / 2017-06-27 15:18:25 / 25293 / 70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, 바로 당신 입니다!

□ 국내, 수출과 투자 주도의 경기회복 확산을 위해 내수경기 및 일자리 뒷받침 필요

○ 1/4분기 경제성장률은 '16년 4/4분기(2.4%)보다 높은 2.7%를 기록

- 건설투자가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, 설비투자도 반도체 부문의 호조로 인해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며, 이에 따라 자본재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
-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수출 여건도 개선

성장기여도 (%p)	내수	민간소비	정부소비	건설투자	설비투자	순수출	수출	수입
	4.4	1.0	0.4	1.3	1.2	**△1.8**	1.5	3.3

○ 4월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기저효과, 수출개선 등에도 불구 6.2만명 감소

- 영세 자영업자 증가, 청년 실업률 상승 등 질적으로도 미흡

※ 제조업 취업자수(전년동월대비, 만명) : 12.4('16.3) → 4.8(4) → △9.2('17.2) → △8.3(3) → △6.2(4)

※ 청년지표('16.4→'17.4, %) : (경활율)46.9→47.9 (고용률)41.8→42.5 (실업률)10.9→11.2

∵ 기업에서 투자를 늘리고 수출이 증가해도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는 이유는 ①인력이 많이 필요한 제조업(휴대전화, 자동차)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②기술·자동화 설비 위주의 투자(반도체, 석유화학) 등으로 인해 신규 고용창출은 미미한 수준

※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등은 '16년 19조원 투자했지만 신규고용은 900명에 그침

○ 新정부의 경제정책(제이노믹스)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수효과(Trickle-up effect)*를 추구

* 가계·저소득층 주도의 Down-Top 방식 성장모델

- 이를 위해 10조원 추경 편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언급(기재부, 5.22일)

→ 일자리 창출로 인한 소득증가가 소비·투자·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성장 先순환 구조 구축이 기대

분기지표	'16.Q1	Q2	Q3	Q4	'17.Q1
GDP(전기대비, %)	0.5	0.9	0.5	0.5	0.9
GDP(전년동기대비, %)	2.9	3.4	2.6	2.4	2.7

월지표		'16.3월	4월	12월	'17.1월	2월	3월	4월
제조업	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△0.7	△2.7	4.4	1.5	6.9	3.2	
	출하(전년동월대비, %)	0.9	△1.5	4.5	1.4	7.3	1.4	
	재고(전년동월대비, %)	3.1	△0.9	△5.9	△5.9	△6.0	△5.8	
	평균가동률(%)	73.7	71.8	72.7	74.2	71.0	72.6	
서비스업 생산(전년동월대비, %)		2.5	2.0	1.9	2.6	2.5	2.8	
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		6.3	3.8	1.8	4.1	0.5	1.6	
투자	설비(전년동월대비 %)	△7.7	△2.5	10.5	10.3	19.5	22.8	
	건설기성(전년동월대비, %)	20.9	13.4	12.2	13.0	22.3	18.0	
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		0.8	1.0	1.3	2.0	1.9	2.2	1.9
아파트 매매가격(서울, pt)		100.3	100.5	104.2	104.3	104.3	104.4	104.5
실업률(%)		4.3	3.9	3.2	3.8	5.0	4.2	4.2
수출(전년동월대비, %)		△8.2	△11.1	6.3	11.1	20.2	13.6	24.1
수입(전년동월대비, %)		△13.4	△14.4	8.0	19.7	23.9	27.7	17.3

16.42 / a669fe38-dfc / 2017-06-27 15:18:25 / 25293 / 70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, 바로 당신 입니다!